

사꾸엘

정하은

010-9907-4845

anyway4545@gmail.com

*서브텍스트(인물의 생각과 행동 방향)가 포함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S#1. 반지하 집, 밤, IN

사무엘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교리집 속 글자들을 오가며 노란 형광펜을 긋는다. 오늘 있었던 사건이 불러온 혼란 때문에 잠에 들 수 없다. 한 문장에 반복해 형광펜을 그으며 마음 속으로 그 말을 되풀이한다. 구절이 효능을 발휘해 모든 것을 깨달은 듯한 안정감을 되돌려주길 기대하면서. 젖은 종이는 뚫려 버리지만, 여전히 책 속의 말은 너무 공허하게 들린다.

이게 아닌 것 같아. 책을 덮어 오래된 책더미 위에 올려두는데, 거친 손짓에 책 더미가 무너진다. 위에 쌓여 있던 신문과 고지서, 다 쓴 교과서, 어린 사무엘의 사진이 들어간 종교 홍보용 전단 아래에서 오래 전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샀던 먼지 쌓인 책들이 드러난다.

<기 치료의 이해><증후군: 그 정의와 치료><12개월 자연치유><면역이 답이다><소아 응급의료 119><육아일지>그리고 사무엘이 낫고 나서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일기 중 가장 행복한 것들 몇 장. 치유. 누군가가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가 어릴 때부터 보아 온 신도들 역시 원하는 것들이다. 사무엘은 그 뜨겁고 축축한 마음의 열기가 이곳이 옳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던 것을 반쯤 무의식적으로 떠올린다. 이게 해답이 되어 줄까?

사무엘 엄마.

사무엘 내가 어렸을 때 어땠어?

함께 방바닥에 쏟아져 있는 종교 전단지 안에는 아팠다 나은 어린아이의 간증 사진이 있다.

S#2. 빌라촌 골목길, 낮, OUT

초반에 사무엘과 명진 교차 진행.

가방 안 시점. 운동복을 입은 사무엘이 종교 전단지를 꺼낸다. 후드와 모자, 턱에 마스크를 쓴 명진은 돌돌 말린 회색 비닐 뭉치같은 것-마약을 꺼낸다. 사무엘은 골목길을 가로질러 달리다가 벽에 전단지를 붙이고, 명진은 골목 구석 눈에 띄지 않는 틈새에 마약을 숨긴다.

사무엘은 이어폰을 끼고 달려나간다. 배경음악이 깔린 설교를 들으며 푸른 하늘을 보고 달리면서, 활기로 충만하다. 행인이 지나가는데, 옆을 지나며 가볍게 인사한다. 명진은 행인의 인기척에 황급히 허리를 펴고 탄성을 피운다.

달리다가 멈춰 서서 우유를 마시는 사무엘. 아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던 눈 앞 골목에 반운 얼굴이 얼쩡거리는 것을 발견한다. 뭐야, 명진이잖아? 우연이네.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사무엘은 이어폰을 빼고 전단지와 함께 가방 속에 던져넣은 후 명진을 부른다.

사무엘 야, 김명진! 하이! 거기서 뭐 해?

숨길 곳에 약 봉투가 잘 붙지 않아 킁킁대던 명진은 이름을 듣고 제 발 저린다. 뭐야? 누구지? 뭐라고 하지? 그냥 잡히지 말고 여기 없었다고 하자. 명진은 마스크를 올리고 달려서 도망친다. 그걸 본 사무엘은 뒤따라 달린다.

사무엘 야, 어디 가!

도망치던 명진은 누가 쫓아오는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봤다가 진입 금지 표지판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고, 사무엘 역시 함께 바닥을 구른다. 아스팔트 바닥을 수놓는 사이비 전단과 비닐 뭉치들.

사무엘 아오... 씬. 뭔데? 진짜.

사무엘이 앓는 신음을 한다. 길거리에 수상한 뭉치들을 쏜 명진은 심장이 떨어지는 당혹스러움에 아픔은 느껴지지도 않는다. 사무엘은 고개를 들어 황급히 수습하는 명진을 본다. 수상한 행동거지로 보건대 찜찜한 일에 엮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명진은 비닐 뭉치들을 쓸어담다가 같이 떨어져있는 사무엘의 전단을 순간 보고, 인식한다. 사무엘은 그걸 보고 자신의 옆에 쏟아진 전단지를 살짝 등뒤로 밀어넣어 본다. 그러거나말거나 자기 가방에 비닐뭉치들을 다 욱여 넣은 명진은 달려서 도망친다.

S#3. 교실, 오후. IN

방과후 교실, 둘러앉아 모여 있는 학생 다섯 명. 여자친구와 카톡하느라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겁쟁이(대호), 양아치, 문제집에 뭔가를 빠르게 적고 있는 광대, 그리고 서로를 신경쓰고 있는 명진과 사무엘. 양아치는 거만하고 방자하며 가벼운 태도로 게임 학원 끊은 얘기를 떠든다.

양아치 수학 학원? 존나 오케이이지. 챌린저가 직접 와서 일대일로 강의를 해준다니까?

광대 오, 개오지네. 나 버스타워달라고 하면 안되냐?

양아치 나는 입학 테스트에서 탈락이야.

사무엘 게임 학원도 입학 테스트가 있어?

양아치 플레 이하는 입구컷이야. 내가 또 한컨트를 하잖냐.

(게임 이야기의 디테일이 어려워 자료조사 및 자문 필요) 양아치가 혼자 떠드는 동안 사무엘과 겁쟁이가 조금씩 맞장구 쳐 주고,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에 타자를 치는 명진. 다리를 떼다. 사무엘은 명진의 그런 기색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보낸 명진이 사무엘에게 몸짓과 입모양으로 핸드폰을 보라고 지시하지만, 평소 무음모드 폴더폰(5G 가능)을 쓰는 사무엘은 알아듣지 못하고 명진의 몸짓과 입모양을 따라하기만 한다. 답답한 명진. 명진의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라는 말로 이해한 사무엘이 화면을 보려고 고개를 숙이자, 화면을 숨기며 밀어낸다.

양아치 근데 넌 답지 보고 하는 거 맞냐?

광대 아니, 안 보고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뭔가 적고 있던 학습지를 한 장 찢어 버리는 광대. 아주 담담한 얼굴. 깜짝 놀라는 양아치. 학습지는 게임 학원을 끊어 주는 대신 수학 학원도 다니기로 약속한 양아치의 것이다. 양아치가 광대 등을 때리며 놀란다.

양아치 아이 미친 그걸 왜 찢어?

광대는 찢푸리더니 뜯은 학습지로 종이비행기를 접으며 설명해준다.

광대 야 생각해봐. 니가 이걸 많이 맞추면 풀어온 것 같겠냐 베껴온 것 같겠냐?

양아치 아니 근데 왜 찢냐고.

광대는 종이비행기를 명진 쪽으로 날린다.

광대 똑같은 거지. 니가 암전히 이걸 다 참고 풀었다는 게 현실성이 없잖아. 명진. 그거 한 번만 밟아서 나 주라.

겁쟁이 올~ 조던 발자국.

양아치 찢어서 전화가면 집에서 야랄나는 건 난데?

광대 기다려봐 좀.

명진은 종이비행기를 한 번 밟고, 종이에서 작은 조각을 찢어낸 후 돌려준다. 광대는 책에 스카치테이프로 다시 페이지를 붙인다.

광대 자, 이제? 정말 하기 싫지만 꼭 참고 다시 주워서 풀어온 컨셉.

양아치 문제 생기면 니가 책임지는거다?

광대 신경 써줬더니 말이 많아. 오늘 짜게치로 사라.

이 대화가 나오는 동안 명진은 책상 밑에서 몰래 뜯어낸 종지로 쪽지를 쓰려고 더듬어서 펜 뚜껑을 열고 있다. 그리고 겁쟁이가 붙잡고 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쉰다.

겁쟁이 하아... 야, 니들은 여친 사귀지 마라.

명진 왜 또 지랄이야.

겁쟁이 춤 때문에.

광대 수행 끝났다면?

겁쟁이 수행은 끝났는데, 그냥 하고 싶대.

양아치 뭐 어때? 하자는 대로 해 줘.

겁쟁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광대 개레के 쉽지가 안타.

이 대화가 나오는 동안 명진은 책상 밑에서 몰래 뜯어낸 종이에 글을 써 쪽지를 만들고 사무엘에게 넘긴다. 쪽지에는 짧은 말만 담겨 있다. <피방 X, 얘기 좀.>

S#4. 학교 근처 길가, 오후, OUT

학교 근처 이차선 도로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도로의 코너 지점을 가리키면서 명진이 말한다.

명진 저긴 아스팔트가 다 털려서 맨날 물이 고이거든.

마침 도로 위를 제법 빠르게 지나가는 전동 자전거를 탄 배달원. 명진이 손가락으로 멀어지는 배달원의 등을 따라 한 지점을 가리킨다.

명진 이렇게 가다가... 저기에서 광.

마침내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하자 명진은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 앞에서 운전자가 내려서 바로 번호 내놓으라고 하는데, 바퀴가 찌그러져서 될 수도 없는데 차는 벤츠야. 그리고 나는 씨발 놈의 보험을 안 들었지! 그러나 그런 말을 다 하기는 싫다. 명진은 잠시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 한숨을 쉰다. 사무엘은 명진에게 안쓰러움을 느낀다.

명진 야, 형이 나보고 1200만원을 갚으라는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만드냐?

사무엘 그래서 그게 원데?

명진 어...

사무엘 마약이야?

명진 마약이라는 말은 너무 심하고 약간 그 약국에서 안 팔아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는...

명진은 말하면서 찡찡한 기분에 더 변호해본다.

명진 그게 합법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심한 것도 아니래! 그냥 좀 강한 진통제같은거지.

사무엘 야, 그럼 그게 왜 불법이겠냐? 문제가 있겠지.

명진 나도 알아! 그러는 너는 사이비면서.

사무엘 사이비 아니야. 그렇게 부르지 마.

명진 어떻게 아니야? 딱 봐도 사이비구만. 너도 거기 다니지 마. 너
 그러다 장기 털린다.

사무엘은 살짝 화가 났지만, 확신에 차서 비웃는다.

사무엘 야, 진짜 그런 데 아니니까 후회할 소리 하지 마라. 너 종교의 자유
 모르냐? 진짜 좋은 데야. 엄마랑 나도 많이 도와줬고.

명진은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무시하는 몸짓언어를 보인다. 뭐 그러던가.

그리고 길 저편에서 현대무용 스텝을 밟으며 다가오던 여학생이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인사한
다. 대호의 여자친구다.

여친 안녕.

사무엘 어, 안녕.

명진 역시 적당히 아는체한다. 인사를 주고 받은 후 묻는다.

여친 대호 지금 어딘는지 알아?

명진 개 PC방 갔어.

여친 짬뽕집 앞에 있는 거기?

고개를 끄덕이는 두 사람.

여친 아~ 고마워!

여학생은 빠르게 떠나간다. 명진은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 탈력감을 느낀다. 사무엘을 향해
손을 내민다.

명진 그럼 서로 더 얘기 안하는 걸로 딜?

사무엘이 내민 손을 톡 잡는다.

사무엘 받고 너 찾는 거 도와줄게.

명진 너 못 봤다며?

(의아한, 그러나 조금 반가운 기분.)

사무엘 둘이 찾는 게 더 낫잖아.

S#5. 빌라촌 골목길, 저녁, OUT

정보전달 & 속도감을 살리는 퀵 샷 몽타주.

광혁에게서 명진에게 온 문자[그것 때문에 걸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빨리 찾아올게요.]

비닐봉지의 배를 갈라 하얀 알약을 꺼내는 누군가의 손.

골목 구석에 놓인 벽돌을 들어 보는 명진

어두운 구석에 손전등을 비추는 사무엘

알약을 부숴 물그릇에 넣고 녹이는 누군가의 손.

박자를 맞추어 잃어버린 봉투를 찾아보는 둘의 몸짓이 춤추듯 일치한다.

골목으로 행인이 돌아가는 동안 잠시 신발끈을 묶는 척, 천천히 탄창을 부리는 명진. 여전히 몸짓을 이어 가며 봉투를 찾고 있는 사무엘에게 눈치를 준다. 둘은 마주보고 신발 끈을 묶는다.

다시 하수구 밑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빌라 쓰레기장을 뒤적이고, 주차된 차들의 아래를 살펴보는 두 사람.

S#6. 공원, 밤, OUT

하늘은 어둡고, 흰 가로등이 켜졌다. 공원 풀 바닥으로 던져지는 손전등. 명진의 거친 욕설 소리.

명진 씨발!!!

명진은 근심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벤치에 누어져 전자담배를 피운다. 사무엘 그 옆에 앉아서 분위기를 완화해 보려 명진의 어깨를 툭 친다.

사무엘 야, 이미 타이어에 갈려서 비닐조각이 됐거나 하수구에 빠졌다니까.

명진은 연기 섞인 한숨을 내쉰다.

명진 그 형이 들겠냐, 그렇게 말한다고.

사무엘은 자신이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

사무엘 그것만 찾으면 해결 돼? 몇 번 더 해야 하는데?

명진, 기대감을 억누른다.

사무엘 왜, 찾았어? 사실은 거기 주머니에 있냐?

사무엘은 찢리는 양심을 구원이라는 사명으로 가린다.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사무엘 그동안 많이 갚았으면 남은 건 알바해서 갚아도 되잖아. 그냥 앞에 가서 머리 박으면 광혁이 형도 어찌겠어? 걸리면 더 큰일나는 건 그 형인데.

명진은 지나친 참견에 짜증이 난다.

명진 야, 예도하고 전단지 다 해도 한달에 60인데 열 달 동안 빚쟁이 된 거 소문 다 나겠다. 그리고 할머니가...(명진은 정식으로 알바를 하면 기초수급비가 삭감되어 빚을 갚기 어렵다.) 사무엘은 말꼬리를 잡고 던진다.

사무엘 그래, 너희 할머니도 걱정하실 거 아냐.

명진은 더 짜증이 나서 사무엘에게 초점을 돌린다.

사무엘 야, 너 자꾸 그럴 거면 너도 사이비 다니지 마.

사무엘도 공격당한 기분을 느낀다.

사무엘 그거랑 이게 같아? 믿는 건 내 맘이지.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잖아. 네가 와 보거나 했어?

명진 되받아친다.

명진 그럼 네가 우리 할머니랑 살아봤어? 네가 돈 갚을거야?

그때 진동 소리와 불빛. 명진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다. 핸드폰을 확인하느라 얼굴에 푸르스름한 불빛이 어린다. 광혁이 위협하는 내용이다.

명진은 보고 나서 아까 손전등을 던진 곳에 핸드폰도 집어던진다. 잠시 정적.

사무엘 주워올거지?

명진은 갑자기 조금 부끄러워져 자기가 던진 것들을 주워서 먼지를 던다. 그런 명진을 관찰하듯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어 사진찍는 사무엘.

S#7. 핸드폰 화면 (실제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 후 그래픽 작업)

(핸드폰 화면 녹화만 나온다.) 핸드폰에 찍힌 명진의 사진, 화면이 드래그되어 날짜가 뒤로 넘어가면 사진첩 군데군데에는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놀았던 사진 혹은 어두운 길거리에서 즐거워하며 뛰어다니는 몇 초 가량의 영상. 축구공으로 장난치는 명진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곧 산 사진 위에 체크 표시가 뜨고 화면 위에 [canon-20HR에서 출력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뜬다. [예] 버튼이 눌린다.

S#8. 교회 상담실, 낮, IN

작은 포토프린터에서 명진의 사진이 뽑혀 나온다. 사무엘이 그걸 갈색 육공 바인더에 끼워진 종이에 붙인다. 양 페이지에는 명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사진과 친구관계를 토대로 파악한 정보들과 돕기 위한 방법이 적혀 있다. 그리고 다이어리 옆에는 명진이 찾던 마약 봉지들이 있다. 사무엘은 그 봉지를 만지작거리면서, 던졌다 받으면서 고민한다. 차라리 이 약을 명진이 찾지 못하고 광혁이 형과 갈등을 빚은 후 건전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가 평소 느꼈던 명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천모교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이 생각은 그냥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오만이나, 같은 비밀을 이해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이기심일까? 사무엘은 책상 위에 있는 천모 조각상을 들고,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불러 온 짧은 성가를 나지막히 허밍하기 시작한다. 조각상을 양 손으로 쥐고 심장 가까운 곳에 붙이면 안정감이 든다. 허밍은 노래부름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상담실 문을 열고 전도사가 들어온다. 서로 반갑게 인사말을 건넨다. 전도사가 사무엘 맞은편에 앉으려 의자를 뒤로 뺀다.

S#9. 교실, 낮 쉬는시간, IN

바닥과 마찰음을 내며 뒤로 끌리는 교실 의자. 위에 앉으려던 명진이 엉덩방아를 찧는다.

명진 아! 씨발!

의자를 빼고는 실실 웃고 있는 양아치.

양아치 아~ 김명진 그걸 못 보냐.

갑자기 자기를 얹잡아보는 게 어리둥절한 명진, 일어나며 되값아줄 거리를 찾아 양아치의 책상을 살핀다.

명진 니 뭐하냐. 뒤질래?

양아치의 필통을 잡아채는 명진. 양아치는 왠지 여유롭다. 분위기가 지나치게 불손하다.

양아치 던지게? 던져봐. 그거 안에 있는 펜 100만원짜리다.

명진 구라까지마.

허세를 부리는 명진의 표정.

S#10. 학교 뒤편, 오후, OUT.

억울한 표정으로 울상 지으며 상대를 쳐다보고 있는 대호. 여자친구 역시 한바탕 싸운 후 진이 빠진 슬픈 목소리다.

여친 ...잘 지내고.

걸어서 떠나가는 여자친구. 마주선 방향으로 사무엘이 가볍게 달려온다. 학교 뒤편 공터로 향하는 사무엘. 광혁과 양아치, 광대가 명진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다.

하수구 위로 덩불이 무성한 학교 건물 뒤의 그늘진 곳. 광혁이 명진의 가방을 잡아끌어 몸을 바닥으로 던진다. 화가 나지만 여기서 반항했다가 더 곤란해질 수는 없는 명진. 게다가 육체적 힘으로도 밀린다. 광혁이 명진을 발로 툭툭 차며 조롱한다.

광혁 명진아, 너는 왜 이렇게 양심이 없냐? 나라에서, 응? 지원 받아쳐먹으면서 몰래 알바해서 신발이나 사고. 그런 것 좀 사겠다고 하다 사고 친 거 수습해 줬더니 또 사고치고.

광혁 어, 표정 썩네? 야,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니 표정이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명진 형, 제가 다시 가서 찾아볼게요.

광혁이 일을 시켜주지 않으면 새로 구하기 쉽지 않아 다급한 명진. 광혁이 목젓으로 양아치에게 명진을 붙잡게 시킨다. 그리고 신발을 벗긴다.

광혁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앞으로 일은 딴 애들한테 시킬게. 아이, 움직이지 말고.

광혁 야, 그래도 한 달에 백만원은 해 올 수 있지? 천천히 값아. 많이 봐줬다.

벗긴 신발을 뒤에 서 있던 광대에게 넘기고,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까지 빼앗으려 하자 명진이 주머니를 붙잡고 강하게 저항한다.

명진 형 저 진짜 안 돼요! 진짜. 이, 이게 있어야 일을 구하죠.

광혁 어찌라고? 손 안 떼?

그로부터 2~30분 후. 아까보다 살짝 어둑어둑해진 시각. 일어날 기력이 없는 명진만이 그 자리에 남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웅크려 있다. 숨죽인 흰 셔츠 위로 파리가 기어다닌다. 풀숲에 좌우로 움직이는 손전등 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근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경비가 순찰을 도는 것으로 생각한 명진은 괜찮은 척 하려고 일어나 재빨리 옷을 던진다. 하지만 신발이 없어 걸어나가지는 못한다. 명진은 엉거주춤 신발을 찾는 척 주위섬거 본다.

명진 잠시만요. 지금 신발을 좀 찾느라...

사무엘 뭐, 이거 찾아?

뒤를 돌아보자 손전등을 흔들며 찾아온 것은 경비가 아니라 편의점 슬리퍼를 손에 든 사무엘이다. 신발이 반갑지만 당황과 부끄러움에 짜증이 난 명진.

명진 뭐야?

사무엘 너 신발 없어서 집에 못 갈까봐.

사무엘이 다가와 신발을 명진의 발치에 던져 준다. 그걸 신는 명진을 사무엘이 끌어안는다.

사무엘 일로 와 봐.

명진 뭔데?

사무엘 가만히 있어봐 좀. 위로해주려는거니까.

명진 아 징그러워.

사무엘 닥쳐봐. (사이) 우리는 원래 힘들면 서로 이렇게 해 줘. 뭐, 넌 사이비종교 같아서 싫을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은 명진을 잠시 끌어안고 있다. 이내 포옹을 풀고 바깥으로 걸음하는 사무엘.

사무엘 가자. 너 그런데 핸드폰은 어떡하냐? 교통카드 대신 찍어 줘?

그대로 가만히 서서 잠시 집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명진, 충동적으로 말을 꺼낸다.

명진 야, 너네 교회에 하루만 잘 데 있냐?

S#11. 교회, 저녁, IN

조용한 싱잉벨 소리가 울린다. 흰 계열의 옷을 차려입고 교회 의자에 앉아 같은 물그릇을 천천히 두 손으로 들고 마시는 사람들.

장식품들이 올라가 있는 단상을 뒤로하고 서서 어색한 기분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명진. 빛이 걸치는 곳에 전도사가, 단상 더 바깥쪽에는 몇몇 교인들이 서 있다. 사무엘이 싱잉볼을 올리자 불빛 밖에 있던 신도들이 하나씩 나서 명진을 천천히 끌어안는다.

신도1 잘 왔어요.

신도2 고생 많았어.

사무엘이 싱잉볼을 다시 올린다. 공간 전체가 적막으로 채워지는 것 같은 진동. 어색함에 꿈지락거리는 명진. 고요하고 따듯한 분위기에 풀어지고 싶은 마음과 끓어오르는 경계와 반항심이 명진의 눈 속에 소용돌이친다.

신도3 다 괜찮아.

명진은 충동적으로 그 사람을 마주 끌어안아 본다. 뜨거운 모르는 사람의 몸을. 품에 안기는 것은 해결된 일이 없는데도 약간의 안정감을 준다. 신도 3이 등을 두드려 준다. 마지막으로 전도사가 명진을 의례적으로 포옹한 후, 마이크 앞으로 세운다. 관중들 앞에 어색하게 선 명진.

명진 안녕하세요. ...김 명진 입니다.

옆에 선 전도사가 상황을 주도하며 이끌어 나간다.

전도사 왜 이곳으로 왔는지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땅은 모든 이를 포용하는 품입니다. 바깥에서 사람을 괴롭게 하던 덧없는 것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울리는 싱잉벨 소리. 전도사가 명진의 두 손을 모아 준다.

전도사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그리고 내쉬세요. 같은 박자에 맞춰서. 몸 안에 가득 공기를 채우고, 번뇌는 내뱉습니다.

전도사 천모님을 섬기는 것은 함께 숨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김명진. 앞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서로를 도우며 힘들 때 안아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명진은 눈을 뜨고 주변을 잠시 살펴본 후 대답한다.

명진 네.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박수쳐준다(혹은 특정한 동작.). 명진은 단상 위에 어느새 준비되어 있는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전도사가 아까 사람들이 마신 물과 동일한 그릇에 담긴 물을 머리 위로 천천히 붓는다.

전도사 우리는 모두 아픈 사람들입니다. 바깥에서의 죄와 아픔을 씻어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신도들이 뒤의 문구를 이어 말한다.

신도 당신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물이 명진의 눈으로 흘러내려, 눈앞에 있는 신도들의 상이 물방울로 왜곡된다. 눈이 따갑다. 손으로 눈가를 만져 보자 채 녹지 않은 흰 가루가 묻어나온다. 조명 때문에 어두운 전도사의 등. 가루를 훑아 본다. 씁쓸한 맛이 난다. 전도사가 뒤를 돌아 명진을 일으키고, 퇴장할 수 있도록 스포트라이트 밖으로 이끌며 손에 무언가 쥐어 준다.

전도사 명진아.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손을 펴 본다. 거기 있는 것은 애타게 찾던 마약 봉지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충격을 받은 명진. 잠시 멈춰서 있는 동안 전도사는 계속해서 집회를 이끌어간다. 사람들에게 기를 맑게 하는 쓴 물을 받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서서히, 사무엘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깨닫고 화가 나기 시작한다. 동시에 머릿속에 퍼즐이 짜 맞춰지면서 평온한 사람들의 표정이 아까와는 다르게 보인다. 시키는 대로 배달을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배신에 화가 나는 동시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무섭다.

정돈된 무대 뒤쪽에서 명진이 걸어 나온다.

사무엘 (숨죽여) 야 뭐해...!! 이제 나가면 안돼.

사무엘이 나가지 말라고 제지하려 하자 밀쳐낸다. 싱잉볼이 바닥에 떨어져 구르면서 시끄러운 금속성의 불협화음이 난다. 사무엘에게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던진다. 사무엘 역시 그 봉지가 명진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다. 전도사가 알아서 폐기하겠다고 했었는데.

명진 미친 새끼야. 너 뭐 사이코패스야?

사무엘 아니, 난...

전도사 그만!

명진 아이, 씨발 진짜!

전도사가 뒤에서 명진의 붙잡아 진정시키려 하자, 거칠게 쳐내다가 전도사 명치를 팔꿈치로 찍어버린다. 쿠당탕 넘어지는 전도사.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라 순간 당황하는 명진. 장내가 매우 소란스럽다. 무대에 서있던 다른 신도들이 소란을 잠재우러 달려와 명진을 붙잡고 무대 밖으로 이끈다.

명진 잠시만요. 저거 마시면 안된다고! 저거 마약이라고! 계속 먹으면 인생 좇된단 말이야!

시끄러운 와중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닿지 않는다. 나동그라졌던 전도사가 화가난 채 일어나서 다시 명진 쪽으로 간다. 어둠 속으로 다가와 천모상을 쳐든다. 그걸로 명진을 내리쳐 기절시키는데, 멀리 객석에서는 모든 소란이 작게 보인다.

기절한 채 들쳐업혀 나가는 명진. 단상에 있던 신도 1은 화를 내며, 신도 2는 그런 신도 1을 안아 달라고, 신도 3은 명진을 업어 나가며 비틀린 동정심을 표출한다.

신도1 어쩔 그런 음해를 하니?

신도3 악귀의 농간이지. 불쌍한 것. 정화하면 괜찮아 질거야...

S#12. 반지하 집, 밤, IN

사무엘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교리집 속 글자들을 오가며 노란 형광펜을 긋는다. 오늘 있었던 사건이 불러온 혼란 때문에 잠에 들 수 없다. 한 문장에 반복해 형광펜을 그으며 마음 속으로 그 말을 되풀이한다. 구절이 효능을 발휘해 모든 것을 깨달은 듯한 안정감을 되돌려주길 기대하면서. 젖은 종이는 뚫려 버리지만, 여전히 책 속의 말은 너무 공허하게 들린다.

이게 아닌 것 같아. 책을 덮어 오래된 책더미 위에 올려두는데, 거친 손짓에 책 더미가 무너진다. 위에 쌓여 있던 신문과 고지서, 다 쓴 교과서, 어린 사무엘의 사진이 들어간 종교 홍보용 전단 아래에서 오래 전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샀던 먼지 쌓인 책들이 드러난다.

<기 치료의 이해><증후군: 그 정의와 치료><12개월 자연치유><면역이 답이다><소아 응급의료 119><육아일지>그리고 사무엘이 낳고 나서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일기 중 가장 행복한

것들 몇 장. 치유. 누군가가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가 어릴 때부터 보아 온 신도들 역시 원하는 것들이다. 사무엘은 그 뜨겁고 축축한 마음의 열기가 이곳이 옳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던 것을 반쯤 무의식적으로 떠올린다. 이게 해답이 되어 줄까?

사무엘 엄마.

사무엘 내가 어렸을 때 어땠어?

그는 옆 방바닥에 돌아누워 있는 엄마를 바라보고 답을 구한다. 창 밖의 희고 둥근 가로등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녀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답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지만, 어린 사무엘에게 가졌던 순수한 애정을 떠올린다. 이제는 종교 전단지의 홍보거리가 되어 버린 시절 이야기다.

엄마 그때 내가... 스물셋이었지.

사무엘 나랑 몇 살 차이나지도 않네.

엄마 네가 엄청 울었지. 아프니까. 짜증도 많이 내고.

사무엘 힘들었겠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 건강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S#13. 길거리, 밤, OUT

길거리를 달려나가는 사무엘과 그의 그림자. 밤중의 인적 드물고 쇠락한 골목. 울렁이는 가로등의 빛과 거친 숨소리.

S#14. 교회 앞, 밤, OUT

사무엘이 교회 앞에 도착하지만, 출입문은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겨 있다. 사무엘이 천모상을 들고 잠시 경건한 침묵을 가진 후, 유리문을 부순다. 세콤 소리. 부서진 유리문 안으로 들어간다.

S#15. 교회, 복도, 밤, IN

사무엘이 썼던 명진에 대한 파일을 들고 어둠 속에서 나오는 전도사. 지금까지와 달리 사제복이 아닌 평범한 티셔츠에 바지를 입고 있다. 사무엘의 어깨를 잡아서 깜짝 놀래킨다.

전도사 워.

사무엘 전도사님.

전도사 무엘아, 유리문을 깨면 어떡해. 저거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경계하는 사무엘.

사무엘 명진이 어딴어요?

전도사 기도실에. 자고 있어.

사무엘 어떻게 하려고요?

전도사가 사무엘이 쓴 파일을 펴서 천천히 읽으며 얘기한다.

전도사 김명진은 누구인가...어떻게 하긴 될 어떻게 해. 싫으면 가는 거지.

내일 사람들 앞에서 사과만 한 번 해주면 돼. 소란 피워서
죄송하다고.

사무엘 진짜예요?

전도사 그럼. 진짜지.

사무엘 아니, 진짜 마약이에요?

전도사가 파일을 덮는다.

전도사 마약이라는 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 그냥 진통제라고
생각해 봐.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진단다.

전도사 그 희망까지 뺏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

전도사가 사무엘에게 손을 내민다.

전도사 자. 집에 가자. 유리문은 없던 걸로 해 줄게. 어머니가
걱정하시겠다.

사무엘은 가까이 다가온 전도사의 손을 잡는 듯 하다가... 앨범을 빼앗아 달린다. 멀리서 울리
는 화가 깃든 전도사의 호통 소리.

전도사 야, 이사무엘!!

사무엘은 계단 문을 열고 뛰어들어간다.

전도사 너 진짜 이러기야?

건물의 계단의 센서등이 차례로 깜박거리는 추격전. 사무엘은 위만 보고 바쁘게 다리를 놀린다. 기도실은 5층에 있다. 정말로 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란한 추격전과 달리 건물 밖에서 보이는 것은 계단 불이 깜박이는 것 뿐이다. 2층에서 2.5층, 3층, 3.5층... 그리고 3.5층에 불빛이 머무르다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다시 3층 불이 켜진다.

돌과 쇠로 된 계단 위로 피가 흐른다.

S#16. 공원, 새벽.

땅 위에서 불에 타고 있는 노트. 사무엘과 김명진이 공원 의자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둘 다 졸딱 젖은 꼴이다. 명진의 상처에는 약이 발려 있고,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사무엘도 그새 아까보다 몸싸움한 흔적이 나 있다. 명진이 남은 연고와 소독약 등을 던져 준다.

명진 나도 진짜 병신이지만... 살다살다 너같은 개병신은 본 적이 없다.

사무엘 깊은 한숨. 불꽃 앞에 있는데도 얼굴은 절망에 빠져 어두워 보인다.

명진 야 안죽었을거야. 인상 퍼. 등치도 존나 크더만.

사무엘 ... 엄마가 놀라겠다.

명진 우리 할머니는 기절할걸?

벤치에 있는 사무엘의 핸드폰. 119에 문자로 신고를 넣은 내역이 보인다.

명진 아 역시 공중전화로 하자고 할 걸 그랬나. 너 때문에 원 플러스 원이잖아.

사무엘 먼저 가라니까. 너 얘기 안 할게.

명진 됐어. 그냥 광혁이 형까지 끌고들어갈랜다.

의자 앞에는 낡은 다이어리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다 차지 않은 달이 밝다. 멀리에서 경찰차와 구급차 오는 소리가 들린다.